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③ 03. ① 04. ① 05. ② 06. ③ 07. ②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② 17. ④ 18. ③ 19. ④ 20. ①

1.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진정한 쾌락으로 보고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⑤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 즉 부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2. 홉스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전쟁 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세운다고 보았다. 국가는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생겨난다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홉스에 따르면 정치 질서는 사회 계약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다.
- ②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④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

3. 칸트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도덕적 주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그 자체로서 보편적인 것이다.
- ③ 칸트에 따르면 개인의 행위 원칙인 준칙 중에는 보편화가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
- ④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그러므로 선한 의지와 무관한 도덕적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없다.

4. 노자와 공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노자이고, 을은 공자이다. 노자는 분별적 지혜나 인위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 무위의 정치[無爲之治]를 강조하였으며, 공자는 정명(正名)과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노자는 공자와 달리 현자(賢者)나 지자(知者)를 숭상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노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에 따르면 도(道)는 작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③ 노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충서(忠恕)의 덕을 강조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 ④ 공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공자가 강조한 인(仁)은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분을 전제로 한 사랑이다.
- ⑤ 공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인의(仁義)를 버릴 것을 강조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자유주의의, (나)는 공동체주의의 기본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그것들을 최대한 잘 보호해 주는 사회 체제를 추구한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이 개인적 선보다 우선하며,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안내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가능한 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자유주의는 국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본다.
- ③ 자유주의는 인간을 다른 사람과 독립된 자율적 존재로 보지만,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상호 의존적인 연대적 존재로 본다.
- ④ 자유주의가 정치 공동체를 개인의 삶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데 비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기반으로 본다.
- 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모두 개인적 선과 공동선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6. 인성에 대한 맹자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나)의 퍼즐 속 가로 낱말 (A)는 ‘인내천(人乃天)’이고, (B)는 ‘이성(理性)’이다. 그러므로 세로 낱말 (A)는 ‘인성(人性)’이다. 맹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성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량한 덕성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맹자가 중시한 호연지기(浩然之氣)에 대한 설명이다.

- ②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으로 보는 삼독(三毒)이다.
- ④ 무욕(無欲), 무지(無知)한 삶을 강조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 ⑤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의 본체로서의 성(性)은 사단이나 칠정과 같은 감정으로 표현된다.

7. 벤담과 밀의 공통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잰은 벤담이고, 을은 밀이다.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쾌락의 양적인 차이를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밀은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한다고 보고(ㄱ),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여긴(ㄷ) 공리주의 사상가들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벤담과 밀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달려있다.
- ㄷ. 밀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8.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잰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성이 곧 천리[性卽理(성즉리)]이며, 성에는 인의예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천리[心卽理(심즉리)]이므로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효의 이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격물치지(格物致知)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주희가 격물치지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에 비해, 왕수인은 타고난 참된 앎인 양지(良知)를 발휘하여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주희에 따르면 인간과 사물은 모두 본연지성을 가지고 있다.
- ②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언제나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 ③ 왕수인은 도덕적 앎과 도덕적 실천이 별개가 아니라는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제시하였다.
- ④ 왕수인은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도 이치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9. 정약용이 주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주희와 달리 사덕(四德)을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四端)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약용에 따르면 인의예지는 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치[理]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ㄱ). 그리고 사단의 실천과 덕의 형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정약용에 따르면 자주지권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다.
- ㄹ. 정약용에 따르면 덕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10. 데카르트와 흄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성주의 사상가인 데카르트이고, 을은 경험주의 사상가인 흄이다. 흄은 사회적 유용성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는 공리주의 사상의 모태가 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방법적 회의란 명백하고 자명한 진리를 찾기 위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을 가리킨다.
- ② 인간의 공감 능력을 도덕의 토대로 본 사상가는 흄이다.
- ③ 흄은 이성이 도덕적 행동의 직접적인 동기는 될 수 없지만,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알려줄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데카르트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서는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11. 이황과 이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라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사단을 본성[性]이 마음에서 발현된 결과로서의 감정[情]이라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이황에 따르면 칠정은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이다.
- ② 이이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으로 변할 수 없다.
- ③ 이이는 기질지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다.
- ④ 이황과 이이는 모두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12. 장자와 순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장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자연적 본성과 인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하였다(ㄴ). 그리고 예(禮)를 인위적으로 형성된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 보았다(ㄷ). 다만 장자는 자연적 본성을 인간이 따라야 할 소박한 것으로 보았지만 순자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이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순자는 장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이 사회악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ㄹ), 예를

통해 자연적 본성을 교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13. 아퀴나스와 키르케고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콜라 철학자인 아퀴나스이고, 을은 실존주의 사상가인 키르케고르이다.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이 구분되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를 참된 실존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실존이란 객관성이 아닌 주관성이고, 외면성이 아닌 내면성이며, 보편자가 아닌 단독자이다. 그래서 그는 진리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이 조화될 수 있고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아퀴나스는 자연적 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세의 행복은 종교적 덕과 신의 은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세의 행복을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③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실존적 상황에서 주체적 결정을 회피할 경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 ④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를 거쳐 종교적 단계에 이르러 신 앞에 홀로 서서 신에게 귀의할 때 절망을 극복하고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14.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을은 로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의무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로크는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시민들의 동의에서 찾았다. 로크에 따르면 개인의 정치적 의무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최고의 공동체로 보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
- ③ 로크는 정치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로크는 정치적 의무를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보지 않았다.

15. 지눌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지눌의 주장이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다를 수 없다(ㄴ).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라는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불성을 자각한 뒤에도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ㄷ). 불성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습기(習氣)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지눌은 경전 공부가 없어도 돈오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마음을 직관함으로써 중생인 내가 곧 부처임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 아우렐리우스와 사르트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고, 을은 실존주의 사상가인 사르트르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본성인 이성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성을 따르는 삶은 곧 자연을 따르는 삶이다(ㄱ). 그리고 이성과 자연을 따르는 삶은 곧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기도 하다(ㄷ). 이성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신의 섭리나 자연 또는 이성을 따르는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사르트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ㄹ.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없이 실존한다. 그리고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그 자신을 만들어 간다.

17. 왈처의 정의론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왈처의 주장이다. 왈처는 다양한 영역을 형성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에 적합한 상이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치를 분배할 때에는 사회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왈처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는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각기 다른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 ②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롤스이다.
- ③ 왈처는 분배의 문제를 정의론의 핵심 과제로 보았다.
- ⑤ 왈처는 정의의 각 영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경계가 존재하며,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에 의해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18.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면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지닌 철학자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는 신앙이 아닌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에 따르면 이상 국가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에게 알맞은 덕을 갖추고 자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 ②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죄에 빠진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
-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덕들 중에서 사랑을 최고의 덕으로 보았다.
- ⑤ 플라톤은 세계를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계와 불완전한 세계인 현상계로 구분하였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한 천상의 국가와 불완전한 지상의 국가로 나누어 보았다.

19.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과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이고, (나)는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이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공유와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스미스는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능력 및 업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가)에 비해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도(X)가 높고,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는 정도(Y) 역시 높다. 그러나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공유를 중시하는 정도(Z)는 낮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그림의 ㉔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②, ③, 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에 비해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20. 유교 사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유교의 기본 관점이 담겨 있는 글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지극한 인(仁)을 갖춘 사람에게 있어서 천지(天地)는 한 몸이고 만물은 그의 몸과 같다. 이러한 입장을 지닌 유교 사상에서는 천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만물을 사랑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③ 도교 사상의 특징이다.
- ④ 불교 사상의 특징이다.
- ⑤ 유교에서는 내세의 행복보다는 현세의 도덕적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